

# AIDS NEWS

**에이즈 백신**  
세계의 에이즈 학술회의가 에이즈에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약속을 내렸다.  
이런 약속들이에서 뉴스는 8가지 HIV를 발효 여과에서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1만 명을 그 장치는 예방접종(CDC)의 보고했다.  
한편 환자들은 뉴스는 발효 여과에서 가장 흔한 부어발이 HIV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는 했지만 완전히 소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이 혼합부어발의 가장 큰 문제는 HIV가 대부분 소멸되지만 유전자로써 계속하고 있던 HIV가 피살아난다는 것이다. 에이즈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어발 100%가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시카고 AFP=聯合)

**가온 항HIV제보다 1천배 강한 치료제**  
기존의 항에이즈 바이러스(HIV) 약물보다 최고 1천배까지 강력한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학자들이 발표했다.  
이 약을 HIV에 감염된 쥐에 주입하면 바이러스의 형성에 필요한 조직 단위들의 생산이 중단되며 "에이즈에 감염된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마법탄환' 같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에이즈에 걸린 쥐들이 아무 부작용없이 치료됐다"고 소개하고 "게다가 원숭이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聯合)  
**값싼 항암제 에이즈치료에 효과**  
값싼 항암제인 하이드록시우레아가 값비싸기로 이름난 에이즈치료제 못지않게 에이즈바이러스(HIV)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유전 인간요법연구소의 프랭크 로리 박사는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리트로바이러스-기회감염 학술회의에서 연구발표를 통해 하이드록시우레아가 HIV를 상당수준까지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값싼 에이즈치료제인 프로테아제억제제의 투여를 여러달 또는 몇해까지 지연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시카고 UPI=聯合)

**에이즈약제 환자에 지방축적 유발**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전문가들은 일부 에이즈약제가 환자들에게 등과 어깨, 목, 복부 등에 과도한 지방축적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원인규명에 나섰다.  
시카고에서 2월 4일 열린 제5회 리트로바이러스 학회에서 전문가들은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투여되는 프로테아제(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가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제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에이즈 학자들은 이 약제가 식욕 항진을 일으키거나 혹은 유전자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으면 약제와 인체의 상호작용 결과 지방축적 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제투여환자의 5~60%가 이같은 비정상적 지방축적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UPI=聯合)

**에이즈백신 실험 지원자 평생 무료치료**  
에이즈 백신 생체실험 지원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될 경우 세계 주요 3개 제약회사들이 이들에 대해 평생 무료 치료를 해주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시카고 소재 국제에이즈치료 의사협회는 약화되긴 했으나 살아 있는 HIV를 이용한 에이즈 백신 실험계획을 후원하고 있다.  
이 협회의 호세 주니가 부회장은 백신 실험 지원자들이 4개 주요 제약회사들에 접근, 필요한 경우 치료세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 제약회사들 가운데 3개 회사(에보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브, 호프만-라 로슈)가 (항바이러스) 약을 기증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4번째 회사인 글락소 웰컴사는 지원자들의 요청을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AFP=聯合)  
**글락소사 새 에이즈치료제 개발**  
영국의 글락소 웰컴제약회사는 자사가 개발중인 새로운 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르가 다른 에이즈치료제들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글락소 웰컴사의 바이러스학자 랜달 박사는 이곳에서 열린 제5차 리트로바이러스-기회감염 학술회의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에이즈치료제들인 AZT, 3TC, d4T, ddI, ddC 등에 내성이 발생한 일부 HIV에 아바카비르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AFP=聯合)  
**국산사약 외제 못지 않다**  
국산 에이즈 항체검사 및 B형간염 항원사약의 품질이 최고급 외산 제품과 대등하며, C형간염 항체사약도 외산 제품

의 품질에 근접하다는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적십자사의 황유성 혈액수혈연구원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검사정보관리협회 제21차 학술대회에서 '국산 시약 평가'를 주제로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시약조성과 검사법·제조사의 자체 성능평가 결과·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3차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지침에 적합하게 실시된 시험결과·제조사의 품질관리와 유통관리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검토했으며, 제조사의 생산체제 및 품질관리 체제·국내사용기관에서의 평판 조사·적십자혈액수혈연구원의 임상시험 등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연구원의 평가결과를 통해 국산 시약의 문제점으로 모든면 변이분체를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판매량이 작고 예측이 어려워 생산일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도관리가 어렵고, 최고 수준의 생산정도관리노하우가 도입되거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

### 혈액수입에 연간 2천800만弗 지출

혈액수입에 연간 2천800만달러가 지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용 혈액은 국내에서 자급자족되고 있으나 악종 제조용 혈액의 경우 5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연간 2천800만달러가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직원들은 혈액의 원전 자급자족을 위해 지난 2월 10일 과천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서울=연합)

### 에이즈 보고 건수 최초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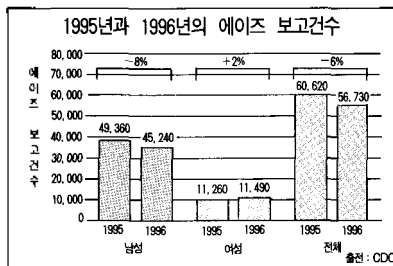
미질병관리센터(CDC)는 1에이즈역학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초로 에이즈 신규발병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 1996년에 새롭게 에이즈로 진단된 환자수는 5만 6,370례에서 95년 6만 620례에 비해 6%가 감소했다.

1992년부터 95년에 걸쳐 신규 보고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에이즈에 의한 사망건수는 1996년 한해 동안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13세이상의 사망건수는 95년의 5만 140례에서 96년에는 3만 8,780례로 23% 감소했다.

CDC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경향은 새로운 병용요법으로 HIV감염자의 에이즈미발병기간이 연장됐고 예방 노력이 전염확대를 막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에이즈 신규발병자는 지역, 인종을 불문하고 감소했으며 약물상습자나 남성동성연애자에서도 감소했다. 또 HIV감염자는 남성에서는 1995년부터 96년에 걸쳐 8%감소한 반면 여성에서는 2%증가했다.

미국민의 에이즈생존환자수는 현재 약 23만 5,470례. 1995년부터 96년에 걸쳐 11%증가하고 있다. (뉴욕=연합)



### "남극지방 펭귄시화에도 매춘있다"

남극으로부터 1천2백80km 떨어진 루드 아일랜드의 과학자들은 펭귄 수컷들

이 암컷들과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자갈과 돌맹이들을 지불하는 현상을 발견. 이를 <오크>라는 잡지에서 상세히 소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했다.

자갈과 돌맹이는 남극의 빙판에서 펭귄들이 알을 낳고 부화시키기 위한 등지를 짓는데 쓰이는데 드물 뿐 아니라 종종 빙판에 깊이 얼어 붙어 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같은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터 교수는 "암컷들이 공격을 받지 않고 돌을 훔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짝을 맞아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신의 짝으로부터 빠져나온 펭귄들은 싸이 없는 수컷의 등지에 접근. 머리를 숙이고 수줍은 눈빛으로 구애신호를 보내는데 수컷이 관심을 보이면 암컷이 엷드림으로써 수컷과 암컷이 어우러져 사랑에 빠지고 교미후 암컷이 돌을 들고 자신의 등지로 돌아간다고 텔레그래프지는 전했다.

헌터박사는 또 그린 행위를 하는 암컷이 단순한 매춘부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암컷의 후손들의 유전적 다양성과 종의 우수성을 위해 남아 또는 수컷들과 짝을 짓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런던 AFP=연합)

### 수혈로 에이즈감염 적십자사에 손해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濤대법관)는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안보씨가 적십자사와 고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적십자사는 2천3백여만원을, 병원은 3천여만원을 안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십자사는 에이즈 감염위험이 있는 동성연애자나 성

생활 문란자 등의 현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혈자의 직업과 생활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문진(問診)을 하는 등 가두현혈의 대상이나 방법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그럼에도 동성연애자인 배모씨에 대해 문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현혈을 허용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안씨에게 수혈하면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측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89년 5월 고려병원에서 자궁수술을 받던 중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의 혈액을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공급받아 수술을 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서울=聯合)

### HIV감염자 40%가 감염 숨기고 성관계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들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HIV 감염사실을 섹스 파트너에게 알리지 않아 아들에게 HIV를 전염시킬 위험이 크다고 美 의학 연구자가 밝혔다.

美의학협회 발간 연구지인 '내과자료집'(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따르면 성관계를 갖고 있는 HIV 감염자의 40%가 자신들의 증상을 최근의 섹스 파트너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지는 특히 "증상을 밝히지 않은 이들 감염자 가운데 콘돔을 사용한 사람은 42%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은 연구결과는 HIV 감염자인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새로운 감염자가 될 위험에 노출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시카고 AFP=聯合)

### 美최저 에이즈 바이러스 '族譜' 찾아냈다.

1959년 한 아프리카인 남자가 현재 전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HIV)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수수께끼였던 HIV의 '족보'가 밝혀지게 됐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토푸 주 박사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리트로바이러스-기회감염 회의에서 1959년 구벨기에령 콩고(현재의 콩고공화국)의 레오폴드빌(현재의 킌사사)에 살고 있는 반투족의 남자가 에이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해 최초의 인간이 감염된 시기가 1940년이나 1950년대초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에이즈 환자라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는 1980년대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으로 약 4천만명에 이르지만 에이즈가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시조"는 과거 어느 시기에 원숭이나 기타 장류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호 박사는 이 반투족 남자의 HIV 유전자를 현재 HIV에 감염돼 있는 39세 남자의 것과 비교한 결과 이 아프리카인 남자의 HIV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HIV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IV족보는 발견됐지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세계로 퍼지게 됐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아프리카에서 백신접종때 쓰인 살균되지 않은 주사 바늘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시카고 AP.AFP=聯合)

### 中國 수혈 통한 HIV감염 근절 다짐

중국은 오는 2000년까지는 수혈을 통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의 확산을 완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관영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중국내 HIV양성반응자는 8천3백3명이며 그중 에이즈로 진단된 환자는 2백9명이고 사망자는 1백19명에 달했다.

중국의 전체 HIV 감염사례의 67%는 마약중독자들이 사용하는 오염된 정맥주사 바늘에 의한 것이며 8%만이 성관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AFP=聯合)

### 13세 소년 사망한 여교사 또 소년망

13세의 소년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출산한 미국의 전직 여교사가 이 소년과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된 직후 이 소년과 다시 밀회를 즐기다가 채포됐다고.

네 아이와 남편을 두고 있는 35세의 이 여교사와 소년은 지난 96년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해 사랑의 표시로 반지를 교환하고 임신계획까지 세웠다가 발각돼 이 여인은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시애틀 AP=聯合)

### 베트남 HIV감염자 8천명 넘어

베트남의 지금까지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자 숫자가 8천70명을 기록했다고 VNA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국가에이즈위원회 통계를 인용, HIV 감염자중 6백38명이 사망했으며 1천2백1명은 에이즈로 진단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엔은 베트남당국이 에이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매춘부, 마약중독자들만을 대상으로 HIV테스트를 실시하고

# NEWS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실제 HIV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해 베트남의 HIV감염자는 8만4천명이며 오는 2000년까지는 26만3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를 발표한 바있다. (하노이 AFP=聯合)

## 中 말의 바이러스로 에이즈백신 연구

중국 북동부 헤이룽강(흑룡강)성 과학자들이 말의 바이러스를 사용,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헤이룽강성 성도 하얼빈의 중국농업과학원 수의학 연구소 과학자들은 중국 예방의학과학원 에이즈 과학자들과 함께 '말 에이즈'로 알려진 '말 전염 동물(EIA)'질병과 에이즈 바이러스(HIV) 사이의 유사점을 연구하고 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 EIA와 HIV의 유전자 구조의 최소한 절반이 정확히 일치하고 전자 현미경으로도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과학원이 개발한 EIA 백신은 에이즈 백신 개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 dpa=聯合)

## 홍콩 작년 HIV 감염자 사상 최고

홍콩특구 정부는 홍콩에서 작년에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새로 감염된 사람이 96년의 1백34명에서 1백81명으로 급증, HIV감염자 집계가 지난 84년 시작된 이래 연간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로 인해 전체감염자수는 9백5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에이즈 퇴치운동가들은 당국에 대해 본토와의 접경에서 이뤄지는 매춘을 통해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콩 AFP=聯合)

## 中國 24시간 에이즈 핫라인 첫 가동

중국이 에이즈에 관한 기록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에이즈 핫라인을 처음 가동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대부분의 성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에이즈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지만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이 통신은 이번이 새로 가동되는 핫라인이 중국 에이즈 및 성병 통제협회에 의해 운영된다고 전했다. 가동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는 15만여명에 이르지만 일부 관측등들은 최고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이징 AP=聯合)

## 인디언 알래스카시 에이즈 급증

대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인들이 백인 못지 않은 에이즈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미질병통제센터(CDC)가 밝혔다.

존 워드 CDC 에이즈 담당관은 "이들

은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백인과 거의 같은 발생률을 보임으로써 공공 보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CDC는 지난 94년까지 인디언과 알래스카인 사이에 에이즈 감염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AP.AFP=聯合)

## 佛 에이즈환자 2만 HIV감염자 11만명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뒤 이미 완전한 에이즈로 진행된 환자수는 프랑스 국내에서 약 2만명에 이른다고 보건부가 발표했다.

보건부는 또 인구 1천2백만의 파리지역이 에이즈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파리 지역의 에이즈 발병 환자수는 약 9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에이즈 환자수는 지난 94년 말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감소추세는 새로운 혼합치료제로 96년과 97년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HIV 감염자수는 총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파리·테구시갈과 AFP=聯合)

## 전세계 에이즈 확산현황

